



공사 개요

참고명	장소	공사명령	용도
① 이호 창고	마쓰시로마치 조잔	1944. 10. 4	정부 · NHK · 전화국
② 로호 창고	니시조무라 마이즈루야마	1944. 10. 4	대본영
③ 하호 창고	토요사카무라 미나카미야마	1944. 10. 4	식량 창고
④ 니호 창고	스자카마치	1945. 3. 23	전파 송신 시설
⑤ 호호 창고	쓰스미무라	1945. 6. 8	전파 송신 시설
⑥ 헤호 창고	스자카마치	1945. 6. 8	전파 송신 시설
⑦ 토호 창고	키요노무라	1945. 3. 23	전파 수신 시설
⑧ 치호 창고	이모이무라	1945. 7. 12	황태자 · 황태후
⑨ 리호 창고	아메노미야무라	1945. 7. 12	인쇄국
⑩ 임시 황거	니시조무라	1945. 3. 23	천황 · 황후 · 궁내상
⑪ 가시코도코로	니시조무라	1945. 7. 12	가시코도코로
⑫ 해군호	아모리무라	1945. 6. 26	해군상 · 군령부

松代大本營

마쓰시로 대본영



NPO法人 松代大本營平和祈念館

NPO법인 마쓰시로 대본영 평화 기념관

〒 381-1231 長野市松代町松代1461

tel 026-214-1557 fax 026-262-1831

●대본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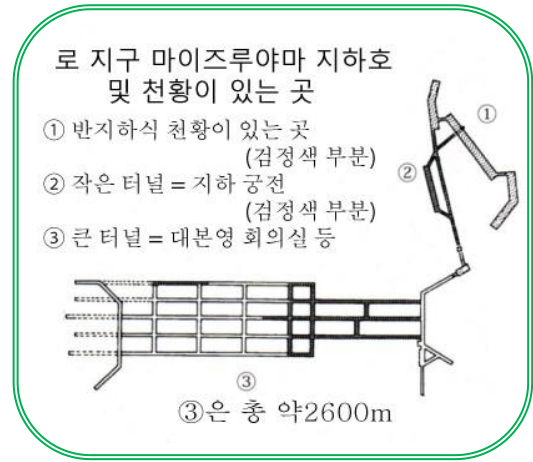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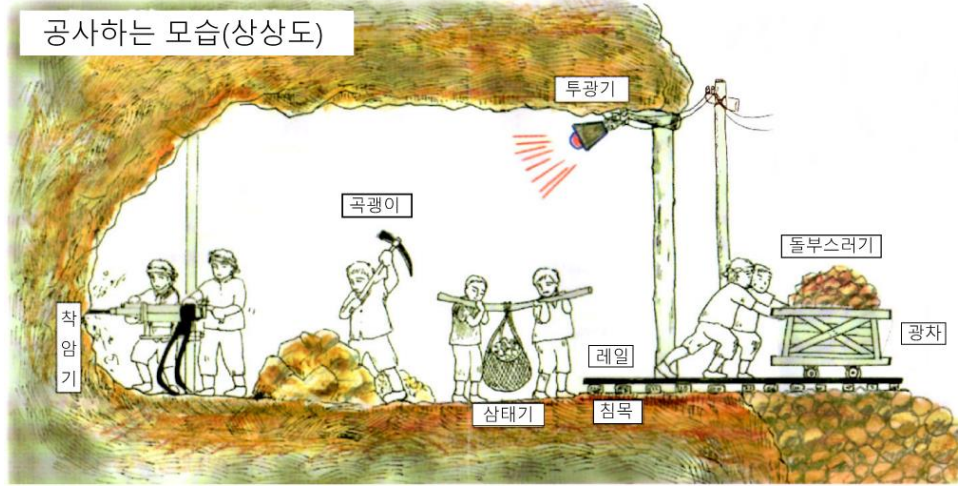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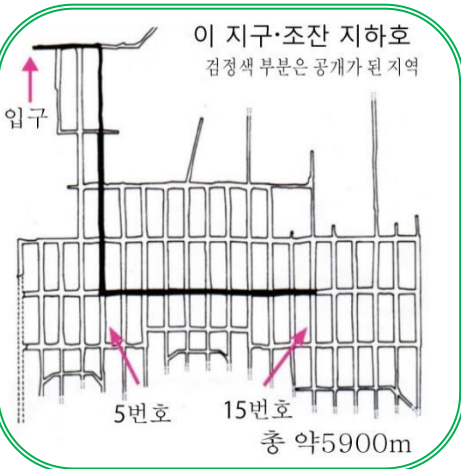
대본영은 전쟁 시 일본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사령부입니다. 최고책임자인 천황(다이겐수이)를 중심으로 하여 육군과 해군의 작전을 세워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본영은 일본군이 전쟁을 하고 적을 쓰러트리면 실제 이상으로 과장해서 보도하였고 반대로 패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예 전하지 않는 등 원래 전쟁이 가지는 잔인함을 숨긴 채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게 하였습니다.

●왜 신슈(信州) 마쓰시로를 선택했을까?

1. 수도 도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것, 비행장이 근처에 있는 점. (지리적 요인)
2. 견고한 암반의 지층이 있어 적의 공습을 버틸 수 있는 점. (지질적 요인)
3. 산에 둘러싼 분지(내륙)이기 때문에 공습을 당하기 어려운 점. 또한 지하에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면적 확보가 되었던 점.
4. 신슈 지역에서 공사에 필요한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점.
5. 신슈 지역은 한자 읽기로 “신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과 같은 발음으로 천황이 이전처로 적합한 품위와 품격을 갖췄다고 생각되었던 점.

●본토 결전이란?

제해·권제공권을 잃은 일본군은 1944년에 “본토 결전”을 결심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미국군은 태평양에 있는 사이판등에 대형폭격기인 B29의 기지를 짓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45년 1월부터는 일본각지에 있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도시에 살살이 무차별적인 폭격을 행하였습니다. 국민은 밤마다 이어지는 공습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에 상륙하여 적군과 싸우는 “본토 결전”에서는 여성과 아이들 마저도 무기 대신 죽창을 들고 마지막 1명이 될 때까지 싸우며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각오를 강요하였습니다.



●왜 마쓰시로에 큰 지하호를 만들었을까?

제 2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의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본영은 수도 도쿄에 있는 황거(천황의 거주지)내에 있었지만 본토에 대한 공습이 다가오자 정부는 지방에 있는 안전한 곳으로 대본영을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천황·군부·정부관계자 등이 지하에 만들어진 지하호에 들어가 전쟁 지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조산(象山)의 지하에는 정부기관과 일본방송협회(NHK), 중앙전화국을 설치하고 마이즈루야마(舞鶴山)에는 대본영과 임시 황거를, 미나카미야마(皆神山)에는 식량창고를 건설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국가체제(국체)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1944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11월 11일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호 공사는 “창고 공사”로 시작이 되어 “대본영의 건설”인 것은 극비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는 9개월에 걸쳐 80~90%가 완성된 시점이었던 1945년 8월에 일본의 패전으로 중지되었습니다.

●누가 지하호를 만들었을까요?

지하호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정부는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강제로 데려온 사람을 포함한 6500여명에게 낮이나 밤이나 위험한 노동을 시켰으며 그들은 마쓰시로에 위치하는 더러운 방에서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1945년 4월 즈음에는 일본인의 근로보국대나 아동과 학생을 포함한 1만명정도가 공사에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쓰시로와 오키나와는 관계가 있을까요?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본토에 미군이 상륙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내 유일한 지상전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비전투원인 시민까지 휘말려 6월 23일(현재 오키나와 위령의 날)까지 이어져 오키나와 주민의 4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전투는 나중에 시작될 본토 결전을 위해 적을 막는 수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연합국이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이 7월 26일에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8월 6일에 히로시마,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8월 14일이 되어서야 겨우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15일에는 천황이 전국민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종전을 선언하였습니다.